

대파 수급상황 관련 속보

2011. 4. 15

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
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

농업관측센터

1. 가격 및 시장 동향

- 4월 15일까지 대과 평균도매가격은 작년보다 24% 낮고 평년보다 16% 상승
 - (2011) 1,122원/kg(상품 기준) → (2010) 1,477원 → (평년) 968원
 - 그러나 14~15일 가격은 800원/kg 내외로 평년보다 낮은 수준임.
 - 수입대과의 영향으로 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임.

- 4월 15일까지 가락시장 대과 반입량은 작년 대비 3% 증가
 - (2011) 3,438톤 → (2010) 3,335톤 → (평년) 3,046톤

- 가락시장 반입량 중 수입 대과는 580톤 내외 추정
 - 3월 수입분의 잔여량 중 390톤과 4월 10일까지 수입된 물량 중 190톤이 가락 시장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됨.
 - 수입대과 경락가격: 350원~ 500원/kg
 - 작년 동기 수입대과 거래실적 없음.

- 가락시장 내 대과 재고량 누적
 - 거래부진으로 일평균 반입량(250~300톤) 중 30% 내외의 재고물량이 누적되고 있음.

2. 산지 출하 동향

□ 진도

- 전체 재배면적의 90% 출하 완료되었으며 출하 진행 속도는 작년과 비슷
 - 재배면적 1,380ha 중 출하완료면적은 1,280ha 내외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.
 - 출하 완료시기: 4월말 예정.

- 신안, 영광 등의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아 월 작업량은 꾸준히 유지됨
 - 일평균 작업량은 10~15대(5톤 트럭 기준) 정도로 작년보다 약간 적은 상황임.
 - 출하면적은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나 기상 호조로 단수는 3월보다 회복됨.

□ 영광

- 출하완료면적은 55% 내외이며 꽃대 형성에 대한 우려로 홍수출하
 - 재배면적 300ha 중 출하완료면적은 160ha 내외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.
 - 4월 들어 잎 재생이 원활해지면서 11일부터 홍수 출하가 이루어졌으나 대파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5일부터 산지 작업량은 전일 대비 20% 감소.
 - 출하 완료시기: 4월말 예정.

□ 신안

- 전체 재배면적의 80%가 출하 완료되었으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
 - 출하는 일정하게 유지 됨(하루 작업량 5톤 트럭 10대 유지).
 - 출하완료시기: 4월말 예정.
- 기상 여건이 좋아지면서 대파의 무게와 잎의 색택이 3월보다 향상됨
 - 작황이 호전되면서 대파 무게가 전월보다 5% 내외 증가함.
 - 3월에 관측되었던 청 시늬 현상도 일부 회복됨.

3. 출하 전망

- 가락시장 내 수입대파 거래는 내주부터 위축될 전망
 - 국내 대파 가격 하락세로 내주부터는 추가적인 수입량은 많지 않을 전망.
 - 따라서 기존에 수입된 대파의 재고처리 위주로 거래될 것으로 보이며, 국내산 대파의 상품성 호전으로 수입 대파의 거래량은 감소할 전망.
- 단위당 수확량은 당초 전망치보다 5% 내외 증가할 전망
 - 3월 상순까지 저온으로 생육이 저조하였으나 기상여건 호조로 단수 증가 :당초(4월 1일 전망치) 작년 대비 4% 감소 → 1% 증가.

○ 금년 겨울대파 파종 시기 앞당겨질 예정

- 기온 상승으로 금년 겨울대파 파종이 작년보다 앞당겨질 전망.
- 따라서 4월내에 출하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어 15일 이후 출하량은 작년보다 증가할 전망.

○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이후 대파 가격 약세 지속 전망

- 국내 대파 가격 하락으로 15일 이후 수입량은 이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작년보다는 많을 전망.
- 여기에 기상 여건 호전으로 국내 출하량도 15일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파 가격은 kg당 1,000원 이하에서 형성될 전망.
- 그러나 수입대파 거래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여 더 이상의 가격 하락세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.